아크릴기를 도입한 반응성 분산염료와 아세틸기를 가진 분산염료의 염색성 및 견뢰도 비교

박동수, 심현석, 정인지, 정재윤

한양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

1. 서 론

최근 들어 두 종류 이상의 섬유 소재를 혼방 또는 교직함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추구하려는 일련의 경향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. Nylon/PET(N/P), Cotton/Nylon(C/N) 교직물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복합소재는 단일 섬유의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특성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두 섬유의 염색성이 상이하여 동색성을 얻기가 어려울 뿐더러, 염색 후 염료의 상대섬유 오염으로 인해 세탁견뢰도 등 제반 견뢰도의 저하가 뒤따른다.

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응형 분산염료가 제시되고 있는데반응형 분산염료는 분산염료의 소수성을 유지하면서 분자구조 중에 섬유와 공유결합을 할 수 반응 기를 가지는 염료로서 폴리에스테르 섬유에서는 일반적인 분산염료로서 염착이 이루어지지 만 반응기를 갖는 Nylon과 같은 섬유에서는 공유결합을 형성을 통하여 염착이 가능해지는 양면적인 염착 거동을 하게 된다.

이 실험을 통하여 아크릴(CH₂=CHCO-)기를 가진 염료와 아세틸(CH₃CO-)기를 가진 염료의 염색성과 견뢰도를 상호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

2. 실험

2.1 시약 및 시료

염료합성 및 염색에 사용한 acetone, acetic acid, propionic acid, 황산, nitrosilsulfuric acid, 수산화나트륨, sodium hydrosulfite는 모두 시판되는 일급시약을 사용하였고, 염료의 milling 과정에서 사용된 리그닌계 분산제인 Reax-81은 (주)정우화인에서 제공받았다.

피염물로는 100% 폴리에스테르(평직, 210×191/5cm, 75d)와 100% 나일론(KS K 0905) 직물을 사용하였다.

2.2 염료 합성

Diazo reaction: 41.6% Acrylic acid2-[(2-acryloyloxy-ethyl)-phenyl-amino] -ethyl ester 6.5g(0.01mol) (1)에 acetic acid 3g 과 propionic acid 0.6g을 투입후 12~15℃로 냉각

한 다음 황산 5.75g를 넣고 20~30℃를 유지한다.

거기에 98% 3,5-Dinitro-thiophen-2-ylamine 1.93g(0.01mol)를 넣은 후 15~20℃로 냉각한 다음 Nitrosilsulfuric acid 3.2g을 투입한 후 20℃에서 두시간 동안 교반하며 반응 시킨다.

Coupling reaction: 황산 1.5g에 아세트산 3g을 투입하여 용해여부를 확인한 후, 얼음 50g을 넣어서 5℃이하로 냉각하고 앞서 만든 디아조늄염 용액을 주입하고 8시간 교반한다. 반응이 완료된 후 석출된 고체를 감압 여과하고, 증류수로 3회 세척한 후 건조하여 Dye 1을 얻었다. Dye 2는 디아조 성분으로 Dye 1에서와 같은 3,5-Dinitro-thiophen-2-ylamine와 커플러로서 Acrylic acid 2-(ethyl-m-tolyl-amino)-ethyl ester (2)를 사용하였다.

마찬가지로 Dye 3과 Dye 4 에서도 같은 각각 커플러 3과 4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합성하였다.

2.3 염색

염료의 분산 : 염색시 염료의 입자크기 차이에 의한 염색성이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염료를 일정한 크기 범위로 분산시켰다. 염료, 분산제, 물을 1:2:7의 비율로 glass bead를 첨가한 후 염료의 평균입자가 300~500nm 범위가 될 때가지 약 24시간동안 교반하였다.

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염색: 균일하게 분산된 염료를 사용하여, 액비 1:40, pH 4.5의 조건에서 Build-Up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0.25, 0.5, 1, 2, 3, 4% o.w.f.의 농도로 염색개시온도는 40℃, 130℃까지 승온속도 1℃/mim, 그리고 130℃에서 40분 유지한 후 60℃까지 2℃/min.의 속도로 냉각하였다. 환원세정은 NaOH 2g/l, sodium hydrosulfite 2g/l, 욕비 1:40의조건으로 행하였다. 염색기로는 Daelim starlet DL-6000을 사용하였으며 염색된 시료는 자연건조 하였다. K/S값은 Color-Eye 3000(Macbeth)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

나일론 직물의 염색: 액비 1:40, pH 4.5의 조건으로 0.25, 0.5, 1, 2, 3, 4% o.w.f.의 농도로 Build-up성을 알아보았다. 염색개시온도 40℃, 1℃/min.으로 100℃까지 승온하여 40min.간 유지하였다. 염색 후 NaOH 1g/l, 세정제로 NP-7을 1g/l, 욕비 1:40의 조건으로 행하였다.

폴리에스테르 직물과 나일론 직물의 일욕염색: 액비 1:40, pH 4.5, 2% o.w.f.의 조건으로 같은 무게의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을 같은 염색포트에 넣고, 염색개시온도 40℃ 승온속도 1℃/min.으로 120℃와 130℃에서 40분간 유지하여 염색온도에 따른 두 섬유간 동색성을 알아보았다.

세탁견뢰도 시험: 세탁견뢰도는 KS K 430에 준해 실시하였으며, 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2% o.w.f로 염색된 시료를 사용하였다.

3 결과 및 고찰

Dye 1 $^{\sim}$ Dye4 염료들을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0.25% o.w.f 에서 4% o.w.f 까지 6가지 농도로 염색하고 피염물의 K/S값을 측정하였다.

3.1 폴리에스테르 직물에서의 염색성

전반적으로 염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많은 양의 염료가 염착되었으며, 2% o.w.f 에서 합성염료와 기존염료 모두 포화 염착량에 도달하였고, 각 염색농도에서 합성된 염료와 기존의 분산염료의 염착량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어 폴리에스테르의 고온고압 염색에서의 특이한

염색성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.

3.2 나일론 직물에서의 염색성

acryl group(CH₂=CHCO-)이 있는 Dye1, Dye2 는 acetyl group(CH₂CO-)을 가진 Dye3, Dye4에 비해 2% o.w.f.부터 눈에 띄게 염착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은 Dye1, Dye2의 아크릴기가 염착좌석으로 제공되어 나일론의 아미노기가 합성염료의 분자 내에 도입된 아크릴기와 부가 반응하여 공유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.

3.3 폴리에스테르 직물과 나일론 직물의 일욕 염색

폴리에스테르/나일론의 교직물 염색 시 합성한 염료의 각각의 섬유에 대한 염색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폴리에스테르의 포화염착 농도인 2% o.w.f.에서 동일한 무게의 폴리에스테르 직물과 나일론 직물을 하나의 염색포트에 넣고 120℃에서 40분간 유지하여 염색을 행하였다.

폴리에스테르 직물과 나일론 직물의 K/S값과 반응성 분산염료의 기존 염료에 대한 염착량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폴리에스테르의 K/S로 나눈 비율을 구하였는데, 이 비율은 100%에 가까울수록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의 겉보기 농도차이가 작은 것이다.

Dye 1 과 Dye 2 모두 나일론에서 acetyl group(CH₂CO-)을 가진 Dye3, Dye4보다 높은 K/S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종류의 직물에서의 겉보기 농도의 차이가 적어서 더 동색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.

3.4 세탁견뢰도

나일론 피염물의 경우 섬유와 공유결합을 형성한 2종의 반응성 분산염료(아크릴기를 가진염료 Dyel, Dye2)가 우수한 견뢰도 성질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, 측정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2% o.w.f.의 농도로 염색된 시료의 경우 반응성 분산염료로 염색된 나일론 직물이 아세틸기를 가진 염료(Dye3, Dye4)로 염색된 나일론 직물보다 훨씬 높은 염착량을 가지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

4. 결 론

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, 그리고 두 섬유를 같은 무게로 하여 일욕에서 염색하고, 그의 염색성과 세탁견뢰도를 아세틸기를 가진 분산염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

- 1.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염착량은 반응성 분산염료와 아크릴기를 가진 염료가 유사하였고, 나일론 섬유에 대한 염착량은 반응성 분산염료가 월등히 많았다.
- 2.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직물을 일욕에서 염색한 경우 반응성 분산염료가 두 섬유간의 염착량의 차이는 줄어들어 동색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.
- 3. 세탁 견뢰도의 경우 서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.